

이용규, 몽골제국사 연구동향 (1995~2008), 몽골국제대학교 이용규, 2008.

이용규,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요 논쟁: 연구의 분절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2010.

토마스 알슨, 몽골제국사 회고와 전망, 2010.

이용규,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요 논쟁: 연구의 분절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2010.

◎ 목적: 거시적인 차원에서 근 25년간의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요 쟁점 검토

◎ 초점: 지역학과 민족사관에 의해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다뤄지는 몽골제국사 연구의 문제점

1. 지역사, 민족사 분절

◎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목제국사 연구: 동아시아사, 서아시아사, 러시아 및 슬라브 역사로 분할

◎ 분절 원인

① 언어 습득의 부담과 다양한 언어권에 흩어진 사료 독해의 문제: 중국어·페르시아어·아랍어·라틴어·아르메니아어·히브리어·그루지아어·몽골어·투르크어·그리스어·시리아어·러시아어·일본어 등

② 근현대 지역학과 민족사 연구

○ 지역학 연구 확대,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명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향

○ 민족사학의 연구로 인해 더욱 세분화된 분할: 러시아, 중국, 신생 중앙아시아 독립국, 중동, 한국

cf 국사학계의 원간섭기론: 고려는 몽골제국의 '식민지' 또는 '속국'이 아닌 비교적 대등한 관계 (특수성)

◎ “노동의 분업”이 가지는 문제점

○ 각 지역학이 생산한 지식이 다른 지역학과 호환되기 어려움

○ 비교 연구 부족 eg. 고려와 그루지아, 이란과 중국의 법제나 군제

◎ 2000년대에 들어서 지역적인 구도를 넘어서는 몽골제국사 내지는 유목제국사 연구가 탄력 (통합사 지향)

○ 서구학계 ①Thomas Allsen ②Michal Biran

○ 동양학계 ①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 ②김호동 ③유광훈·박현희 등 박사과정생

2. 주요 논쟁 3가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목국가체제의 발생 원인을 둘러싼 논쟁 ② 유목국가 역사의 시대구분 ③ 몽골제국사 기초 사료의 관점이나 문제점을 이해하는 방식을 둘러싼 논쟁 |
|--|

(1) 유목국가체제의 발생 원인을 둘러싼 논쟁

◎ Jenet Abu-Lugod(1989), Joseph Fletcher(1986), Thomas Barfield(1989)

○ Abu-Lugod: 12~14세기 교통과 교류의 발달로 인한 소위 '세계체제'의 형성 과정. 다만 몽골제국에서 진행된 세계화와 세계 무역의 확산을 단순히 전근대 시기의 자본주의 이전 단계에서의 발전 정도로 간주.

○ Fletcher: 북아시아 초원지대 유목지역에 형성된 국가들의 공통점. 유목부족들이 통합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정주 지역으로부터 상업이나 약탈·공물 등으로 유입되는 물자를 확보할 필요.

○ Barfield: 중국과 초원지대 사이의 약탈과 평화의 주기적 반복. 북방 유목국가에게 변경에서의 약탈 행위는 진한(秦漢) 시기 이래 중국 한족 황실을 압박하는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이를 통해 조공 제도를 유도.

◎ Nicola Di Cosmo(1994): 유목민과 정주민은 상생적 관계. Owen Lattimore에서 Barfield까지 중국사가들의 왜곡된 시각의 영향으로 유목민들을 호전적이며 전투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로 묘사 (유목민의 자급경제).

◎ Barfield는 중국 북쪽의 몽골 초원 사례. 반면 Di Cosmo는 주로 남부 러시아 평원이나 서투르키스탄 등지 사례. (중앙유라시아의 유목민 사회는 각 초원지역들의 환경 차이, 또는 정주 도시와의 관계상의 특수성 존재.)

(2) 유목국가 시대구분을 둘러싼 논의

◎ 중국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거란·여진·몽골로 이어지며 중국 내지를 통치했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족 또

는 노예제의 사회적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중국 정복 이후 봉건제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이해.

- ◎ Lattimore(1940): 북아시아사와 중국사가 맞물려서 주기를 가지고 나선형적으로 역사가 발전.
- ◎ Barfield: 진한과 흉노, 수당과 돌궐, 명과 복원처럼 중국에 강력한 통일정부가 들어설 때 북아시아의 초원지대에도 강한 유목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음(mirror image). 만주지역 국가들의 중국내지 정복은 '예외적' 현상.
- ◎ Di Cosmo(1999), 김호동(1987): 정주국가와 유목국가가 가지는 경제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역사관에 만족하지 못한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시대구분 노력
- ◎ 대부분의 공통 전제
 - ① 북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유목국가의 역사도 유사한 하나의 일관되고도 연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전개
 - ②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역사 전개는 중국사라는 거대 역사 전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된다는 가정
- ◎ 중앙유라시아 지역에서 유목부족에 의해 건설된 국가들의 경우 하나의 통치 그룹이 다른 문명권으로 이주하거나 정복해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하는 예. (Michal Biran, 2005)
 - 예) 흉노제국이나 월지국의 시기로부터 돌궐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구성원들은 동쪽에서 정치·군사적인 실패를 맞게 되었을 때 서쪽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정권을 형성.
 - 예) 거란의 키타이 제국, 투르크 제국의 후예, 몽골제국
- ◎ 기존의 지역 분할적 틀에서는 중국과 서아시아의 중간지대에 등장했던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유목국가들은 중국사 또는 이란사나 이슬람사의 시대구분의 틀에서 예외적이거나 주변적 존재로 간주되기 쉬움

(3) 사료의 이해를 둘러싼 논쟁

- ◎ 각 지역에서 기록된 사료들은 그 사료를 기록한 지식층의 지역적·신분적·문화적 시각의 한계를 내포
 - 예) 칭기스 칸 대법령(Jasaq)의 실존 여부를 둘러싼 David Morgan과 Igor de Rachewiltz의 논쟁
 - 예) 마르코 폴로 여행기의 실제성 내지는 신빙성에 관한 Francis Wood의 의심과 Rachewiltz의 반박.
- ◎ 기존에는 몽골제국의 통합 기제보다 네 개의 한국으로의 분열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 통합적인 구도에 비중
 - Peter Jackson(1998): 몽골제국이 통합적인 구도에서 어떻게 지역 정권으로 분할되어갔는지를 검토.
 - 스키야마 마사아키: 중국 문헌자료보다는 페르시아 문헌 세계, 특히 Rashid al-Din의 『집사(集史)』에 중시. 쿠빌라이 통치의 몽골적 특징을 성공적으로 그려냄. 사한국[四汗國] 분열에 대해서도 쿠빌라이를 정점으로 한국 간에 느슨하지만 이념적인 통합 기제와 유대 관념 존재했음을 강조.
 - 김호동: 라시드 웃딘은 톨루이(Tolui) 가문의 아들로서 이란 중심의 정주지역을 분리 독립시킨 훌레구의 정통성을 실어줌. 일한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환경의 산물이므로, 정치성과 편파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몽골제국사 연구동향 (1995~2008), 몽골국제대학교 이용규, 2008.

- ◎ 목적: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이후 몽골제국사 연구의 주요 흐름 일별
- ◎ 초점: 서구 학계의 연구, 특히 이슬람사 또는 중동사 분야 연구에 비중
 - cf) 1980년대 중후반~1990년대 서구 학계의 몽골제국사 연구성과는 Peter Jackson(2000) 참조

1. 몽골제국사 연구의 방향

- ① 사료 이용의 변화: 사료 번역과 연구
- ② 페르시아어와 중국어 사료를 같이 읽는 연구자가 연구 흐름을 주도
- ③ 통합사를 지향

(1) 사례 이용의 변화

- ◎ 『몽골 비사』의 역주서 간행
 - Francis W. Cleaves(1982)의 『몽골 비사』 영문본 번역 이래로 다양한 역본
 - Rachewiltz(2004)의 『몽골 비사』 역주서는 중요한 초석(1971~1985년)
 - 한국에서도 유원수(2004) 『몽골 비사』

◎ 페르시아어 사료

- B. Hoffman, G. Herrmann: 일한국 시기의 개인 문집이나 공문서를 가장 광범위하게 다룸
- 일본: 교토대학의 혼다 미노부[本田實信] 이래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와 교토대학 출신 학자들
- 중국: 류잉성[劉迎勝], 리즈안[李治安]
 - 류잉성: 차가타이 한국 역사를 다양한 이슬람권 사료와 한문 사료를 조합해서 이룬 역작
 - 리즈안: 몽골제국 통치의 근간을 형성하는 분봉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는 실증 연구
- 한국: 김호동, 라시드 앓 단의 『집사』 역주는 괄목할 만한 성과

◎ 아랍어 사료: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아랍어 사료 연구 활발

- Amitai-preiss, Melville: 맘룩 왕조의 아랍어사료를 이용하며 페르시아어 사료와 비교 검토.
- P. Wing(2007) (*Alson)
- 한국학계 정수일의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번역

◎ Peter Golden(2000)이 교감한 The King's Dictionary: 14세기 다민족어 단어집의 번역 및 해제

◎ 유럽 지역 사료

- Peter Jackson(2005),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 ~ 1410
- Thomas Allsen(1997),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 몽골제국사의 비교사, 통합사, 문화사, 관계사 연구에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
 - (2001): 칭기스칸 가의 정복과 통치가 당시 사회의 문화에 미친 영향
 - (2006): 유목국가와 정주국가에서 지배층의 수렵행위가 갖는 군사·사상·정치적 역할 비교사적 고찰
- 한국 학계의 『동방견문록』 역주서

◎ 킵차크 한국 사료

- DeWeese(1994): 중앙아시아와 불가 강 유역에 구전되던 후대의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 설화들에는 오히려 금장한국시대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이전 시기의 전통들이 남아 있음(*Alson). 우즈베크 한의 이슬람 개종 전승을 다양한 방법론과 주변 사료를 토대로 몽골제국 이후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 과정 이해

◎ 중국의 원대

- 한국에서 2003년에 발견된 『지정조격(至正條格)』 연구. 김호동, 이개석, 안승준 3인에 의해 교주본 영인본 이 출간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원대(元代) 법전)
- 영미권의 원대 사료 연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확대 시작
- 일본 역사학자들이 몽골의 고고학계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사 활동과 중국 지역에서 발굴한 금석문 연구. 마츠타다 고이치[松田孝一], 모리타 겐지[森田憲司], 시라이시 노리유키[白石典之] 등.

(2) 페르시아어와 중국어 사료의 활용

◎ Thomas Allsen, Michal Biran, 김호동, 스기야마 마사아키, 류잉성, 리즈안

◎ Michal Biran

-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 건설한 제국을 통한 중국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상호영향에 초점
-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2005)는 중국 지역에서 이슬람권으로 가서 국가를 건설한 키타이제국을 통해서 두 문명 사이에서의 중간자로 있게 된 유목민 출신의 통치 세력 연구.
- Chinggis Khan(2007) 칭기스칸의 사후에 수세기 동안 중동 문명권에서 진행되어 온 칭기스칸이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의 칭기스칸의 영향과 평가와 비교
- (1997): 1260년 이후 등장한 독립적 한국들 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대한 최고의 기술 (*Alson)

(3) 통합사 지향

◎ 공동연구 논문집 출간이 2000년도 이후 활발히 진행 (p. 104 각주 36 참조)

◎ 고려, 영국, 러시아, 기타 유럽 각국, 북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맘룩 제국 등의 몽골제국과의 관계사

- Ostrowski(1998): 몽골제국이 모스크바 공국 형성에 미친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향을 재해석
- Ruotsala(2001): 유럽에서 파견된 수사들의 눈에 비친 몽골인, 그리고 몽골인의 의식 속에 투영되었을 유

럽인 수사들의 모습, 둘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간극을 분석한 수작

- Broadbridge(2008): 중동 지역과 관련해 몽골제국과 이슬람 제국에서의 두 개의 통치 이념의 상호작용
- Martinez(1995~1997): 일한 제국과 주변 지역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 분석. 일한 궁정이 인도에서 서유럽으로 뻗은 다면적 교역망 시스템에서 교역상품의 유통, 은괴의 흐름, 중개매매, 통화 조작 등에서 행한 역할.
- Sen(2003): 인도양을 배경으로 한 인도와 몽골제국 간의 무역 관계

◎ 몽골제국 시기의 다양한 지역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의 연구

- Allison의 볼라드 칭상(Bölād Chingsāng)에 대한 연구, 김호동의 이사 켈레메치(Isa Kelemechi) 연구

◎ 비교사적 연구

- Silverstein(2007): 고대 근동에서부터 mamuk 시대에 이르는 제도적인 통신, 우편 방식에 대한 연구
- 이용규: 몽골제국 내 친위조직의 형성 과정과 존재 이유를 당과 압바스 시기 유목민 출신 위병조직과 비교
- 두 지역에서 발전된 법전과 공문서 행정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앞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

◎ 1980년대 들어서 몽골제국의 유목적 특성, 또는 다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는 방향

2. 여몽 관계

◎ 김호동의 『몽골제국과 고려』: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이 고려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려사가 어떻게 제국 역사와 맞물리게 되었는지를 설명 (아릭부케와 쿠빌라이가 벌인 계승 분쟁의 정치사적 격동의 시기에 쿠빌라이가 가지는 필요가 어떻게 고려의 외교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룬 것)

◎ 국사학계와 한국의 북방민족사학계에서도 몽골제국과 고려와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 고려의 역사 기록인 『고려사』를 비롯한 역사서와 문집류: 고려의 국왕은 한 나라의 왕인 동시에 몽골제국의 부마국이라는 이중적인 정치적 위상. 고려 왕실과 몽골 황실 간의 혼인 관계 분석은 제국 정치의 내적인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李命美(2003), 「高麗 元 王室通婚의 政治的 의미」.
- 고려와 그루지아의 특수성 비교 검토: 두 나라 모두 몽골제국의 공격을 받았지만 독립적으로 왕조가 존속하며 몽골의 친연방을 형성하는 것이 허락된 국가. 몽골 군주가 어떤 지역은 직접 지배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간접 지배 방식에 의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고찰할 가치가 있는 부분. 이러한 연구는 제국의 변두리에서의 역동성을 분석함을 통해서 중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이해 방식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
- 북방민족사학자 연구사 정리로 이개석(2007), 「대몽고국-고려 관계 연구의 재검토」

토마스 알슨, 몽골제국사 회고와 전망

◎ 목적: 한국사 연구자들이 민족적 경험을 더 큰 유라시아적 맥락에서 바라보게끔 돕고 비교사와 세계사 분야에서 점증하고 있는 몽골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 기여하도록 격려

◎ 초점: 최근 몽골제국사 관련 연구경향과 향후 연구방향 제시

1. 향후 연구방향

- ① 몽골인들의 언어정책과 집행과정. 대륙에 걸친 집중적인 언어 교류·차용·변용의 중심지.
- ② 제국 전체의 관점에서 칭기스 조의 지배전략에 주목.
 - 초원 이북의 주민들과 초원 이남의 주민들에 대한 몽골제국의 통제와 수취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제국 지배에 있어 직접통치와 간접통치의 문제이다. 왜 몽골인들은 어떤 지배계층은 무자비하게 제거하거나 대체하고 다른 지배계층은 용인하여 현지 정부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두었는가? (겉보기에 이질적이고 연결관계가 없는 한국과 그루지아의 역사가 이러한 틀 안에서 의미 있게 관련을 맺을 수 있음.)
- ③ 몽골인들의 광범위한 인재등용 및 행정인력 활용
 - 관료 일족에 대한 인물 연구: 중국 원조와 이란 일한국의 경우 세밀한 족보 및 전기 자료가 있어서 연구자가 개별 가문·관직, 그리고 그들의 칭기스조의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4~5세대에 걸쳐 추적 가능.
- ④ 문화사
 - 몽골인들은 이슬람세계 동부와 러시아 제국(諸國)을 동아시아에서 동원한 인력과 물자로 정복하였고 결과

적으로 유라시아 서부의 새 신민들에게는 낯선 여러 가지 문화적 패키지를 동반. eg. 몽골인들이 복속시킨 다른 모든 동아시아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 숭배의 관습, 인간 형상의 회화적 표현

⑤ 몽골제국의 경제체제

- 몽골제국의 경제체제는 봉건경제, 조공체제, 재분배 체제 등으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
-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몽골인들이 자원 수취와 교역을 위한, 광범위의 다양한 일련의 체제를 수탈하고 조종하고 침투하며 지배. 고대 및 '근세' 교역체제의 혼합체.

⑥ 세계적 및 비교사적 관점에서 몽골제국사의 위치를 모색, D. Christian(2002)

- 아르케메네스조·사산조·로마·한·당·압바스조·오스만조 및 기타 등 전근대 세계제국의 공통 특성 연구

⑦ 몽골제국의 유산(통치권 이전 현상) 비교 연구

2. 여몽 관계

◎ 이데올로기

- 칭기스 조가 그들 자신의 신민에게 부과한 것과 동일한 정치적 관념을 외국에게도 그대로 강제로 투영할 때, 복속한 군주들의 궁정에서는 몽골제국 이데올로기에 훨씬 순응. Charles Halperin(1984). 러시아 제왕(諸王)들은 '공식적 침묵'이라고 할 만한 행동(드러내놓고 도전하지는 않으면서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 무시)
- 몽골은 그들의 제국 이데올로기를 고려에서도 제국 내 다른 지역들에서와 동일하게 주장하였는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일부분, 일례로 몽골이 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고려의 정치사상과 호환 가능한 것이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이데올로기가 전달되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하였고, 고려측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고려는 침묵의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칭기스조의 이데올로기를 의도를 가지고 전용하고 재해석하여 내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였는가?

◎ 인구이동

- 여러 투르키스탄 무슬림 공동체들을 각각 통째로 중국 서부 및 북부에 재배치, 고려의 한국인들 역시 이와 유사하게 만주와 북중국으로 이주.
- 투르키스탄에서는 대부분의 이주가 정복 직후에 일어났는데, 고려의 경우도 이려했는가? 무슬림 강제이주의 목적은 대개 경제적인 것으로, 서아시아 수공품들을 제조하거나 특수 작물을재배하거나 파괴된 지역을 복구시키는 것 등이었는데, 뿌리가 뽑혀 새로 심긴 한국인 공동체가 해야 했던 일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 무슬림 식민공동체는 이후 중국의 이슬람 공동체의 토대가 되었는데 한국인들도 만주 등지에 이와 유사한 영구적 거점을 형성했는가?

◎ 기타

- 고려의 사원(寺院)들에 몽골 지배층이 면세특권을 부여했는지 여부